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이전과 부산영화 산업

Relocation of Korean Film Council (KOFIC) and Film Industry in Busan

김정호, 김재성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Jung-Ho Kim(kafa1006@khu.ac.kr), Jae Sung Kim(magic@khu.ac.kr)

요약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서 2013년 부산이전을 앞두고 있다. 부산 국제 영화제로 유명한 부산시는 단순히 영화제를 개최하는 페스티벌 도시이기를 거부하고, 영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하여 왔다. 영진위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한국영화정책에서 부산을 한국영화산업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여,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 경기 지역과 부산지역을 한국영화의 두 개의 port로 삼고, 종합촬영소 건설, 영화제작 펀드 조성, 다양성 영화를 통한 영화 인재 육성, ASEAN 국가들과의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한국영화의 국제화 등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 중심어 : | 영진위 | 영화진흥위원회 | 부산 | 부산영상위원회 | 한국영화산업 | 공기관 지방 이전 |

Abstract

Korean Film Council (KOFIC) is entru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aiming to support and promote Korean films. With the government's polic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KOFIC head office will be relocated to Busan. Busan is famous for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ir effort for Korean film industry. Until now, the Korean film industry is concentrated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 With the relocation of KOFIC, it is the time for KOFIC to recognize and promote and Busan as the Second key Cluster of Korean film industry. With the cooperation with Busan Film Commission, KOFIC needs to set up the new promotion plan for Korean film industry for future including building new film production studio, raising regional film production fund, and scouting new talented filmmakers

■ keyword : | KOFIC | Korean Film Council | Busan | Busan Film Commission | Korean Film Industry | Relocation |

I. 들어가는 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한국 영화진흥을 목적으로 1973년에 영화진흥공사로 설립되어 1999년 현재의 영화진흥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영진위의 역할은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과 영화산업의 진흥에 있

으며 그 근거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조'에 두고 있다. 영진위는 영화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고, 영화발전기금을 관리하는, 정부의 감독과 국회의 감사를 받는 준정부 기관이며, 문광부 장관이 위촉한 상임위원장 1인과 비상임 위원 8인 그리고 정원

98명[1]의 조직이며 종합촬영소와 한국영화아카데미 등의 실무조직을 두고 있다. 연간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 예산[2]은 2012년 기준으로 2천8백77억4천2백만 원이며 이중 사업비는 1천20억7천9백만 원이고, 인건비 73억2천2백만 원, 경상운영비 23억3천 7백만 원이다.

영진위의 부산이전은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두며 2005년 6월24일에 발표된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서 ‘수도권 과밀과 일극중심의 국토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 기관 중 175개 지방 이전 대상기관의 하나로 선정되어, 산업적 특성, 지역 내 영화산업기반을 고려하여 부산으로 지역을 확정하여[3], 계획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이전을 하게 된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또 다른 영화관련 기관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이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전남 나주시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로 2013년 하반기에 옮길 예정이다.

1996년 제 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필름 페스티벌 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부산시는 실질적 영화산업이 존재하는 영화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부산 영화산업을 바라보는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현재까지 부산시가 조성한 영화산업 기반의 현황을 살펴보고, 영진위의 부산이전을 계기로 단순히 영화관련 기관의 부산이전이 아니라 현재의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영화산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영화산업의 두 개의 축으로서 부산영화산업을 육성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명, 영진위의 부산 이전으로 서울과 수도권 영화인 및 영진위 직원, 영화 관계자들의 서울 부산 교통비, 숙박비, 업무 처리의 지연 등 불편함이 발생할 것이나, 기왕에 확정된 영진위의 부산 이전이 단순히 부산에 사무실이 위치하고서 수도권의 영화관련 업무를 보는 수동적 형태가 아니라, 부산영화산업을 한국영화산업의 커다란 부분임을 인식하여 육성하는 것이 영진위 조직의 존립 근거에 기반을 둔 과제이며, 아울러서 영화관련 일자리 확대 등 한국

영화산업의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서울과 부산이라는 2극 체제로 한국영화산업의 중심축을 설정하는, 한국영화산업이라는 자진거의 앞바퀴가 서울이라면 뒷바퀴는 부산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II. 부산영화산업을 바라보는 시각들

중심부와 변방, 서울과 부산, 상업영화와 독립영화, 서울의 영화산업과 부산의 영화산업, 서울의 독립영화와 부산의 독립영화. 강소원[4]은 부산의 독립영화가 변방의 변방에 위치해 있다고 본다. 한국 독립영화 안의 중심인 수도권과 주변부인 부산, 그리고 부산 지역 영화산업 내의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산 독립영화는 변방의 변방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앞의 변방은 주류 상업영화에 대한 독립영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독립영화계의 이러한 인식은 서울 영상집단의 펴낸 책 제목 ‘변방에서 중심으로’에도 강하게 담겨있다[5]. 서울의 주류 상업영화계에 비해 변방인 부산 영화 산업계에서도 변방의 위치에 있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변방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변방이라는 의식은 부산지역 영화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영화산업에서 변방이라는 의미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울중심이라는, 그래서 서울과 지방이라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반영이다. 이러한 생각의 확대는 부산에서 영화산업이 과연 가능한가? 영화산업이라는 것이 있는가? 결국 부산시의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는 부질없는 노력이며, 부산은 영화제의 도시로 남고 영화산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이전은 무의미하다는 논의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서울과 지방, 중심과 변방의 논리는 상업영화계와 독립영화계 모두를 지배하는 무의식적 논리인 셈이다. 부산은 언제까지 변방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강소원의 글은 부산영상위원회의 부산 지역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이 상업영화는 산업이고, 독립영화는 문화라는 패러다임에 빠져있으며

상업영화 든 독립영화 든,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영화제작에 대한 지원에 비해 부산 지역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다.

김이석[6]은 부산 '지역영화'가 이중적 소외를 받고 있다고 보았다. 지역영화라는 주변성과 독립영화라는 이중의 주변성에 의해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변성은 수도권에 치중한 영화산업과 그렇지 않은 부산이라는 지방에서 나오는 산업적 주변성, 독립영화의 장르화로 인한 미학적 주변성, 그리고 영화진흥정책과 부산지역 영화산업육성으로부터의 소외에 따른 정책적 주변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김이석은 보았으며, 우리나라 연간 영화관객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부산의 관객비율을 볼 때, 극장 입장료에서 조성되는 영화진흥기금의 일부를 부산 지역 영화진흥을 위해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2011년 기준으로 스크린 수가 부산 186개, 경남 112개이며[7], 부산지역 관객 수는 1천3백57만953명, 경남지역은 7백80만7천651명으로 전국대비, 각각 8.5%와 4.9%의 관객비율을 차지하며, 연간 1인당 영화 관람회수에 있어서 부산은 3.82편, 경남은 2.37편이라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다[8]. 스크린 수에 있어서 전국 2003개의 스크린 수 중 서울의 447개, 경기의 444개를 이은 전국 3위가 부산이며, 4위는 경남이다. 2011년 전국 극장 관객 수에 있어서도 부산은 전국 3위이며 경남은 대구를 이은 전국 5위이다. 서울의 관객 수는 전체 관객 수의 30%, 경기지역은 21.4%를 차지한다. 김이석이 말한 영화진흥기금은 2007년 4월에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영화발전기금중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관 입장료 단가의 5%이하, 현재 시행령 상에는 3%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영화관 입장료에 대해서 부과하던 기금은 1973년부터 시행된 문예진흥기금이 있었으며, 영화관 입장료의 6.5%를 부과하여 오다가 2003년 현재의 위헌판결에 따라서 2004년 1월1일부터 폐지되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2011년에는 324억2천8백만 원이 징수되었다[9]. 부산지역관객비율 8.5%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징수된 금액은 대략 연간 27억5638만원이 된다. 2011년 현재 영화발전기금의 연간 수입 3,083억5천4백만 원에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10.52%의 비중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같은 논리가 각 지방자치 단체가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지역영화산업을 위해서 쓰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부과금은 스크린 쿼터의 축소가 이뤄지던 상황에서 나온 한시적 제도로서 2007년 7월1월부터 모금되어 2014년12월31일까지만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하여, 2015년 이후에도 계속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징수하고, 이 금액에 한해서는 전국의 관객 수 비례해서, 지역영화영상산업의 발전과 지역영화문화, 다양성 영화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서울과 부산뿐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영화문화 활동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서울은 전국관객점유율 30%로 97억2천8백4십만 원을, 최저 전국관객점유율을 보인 제주도의 경우, 0.9%로, 2억9천1백8십여 만원의 지역영화문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 비해서 그 금액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 여건과 지역의 다양성영화제작 예산 규모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각 지방에서 이뤄지는 지원책에 더해서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지역영화산업에 투자된다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영화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종국[10]은 '지역영화' 즉 '부산영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부산영화'를 협의의 의미로 '부산에서 출생하고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는 부산출신 영화인이 부산에 등록된 제작사를 통해서, 부산에서 조달된 자본을 가지고 부산의 역사적 배경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영화를 부산에서 90% 이상 촬영하고 완성하는 영화'로 규정할지, 아니면 광의의 의미로 '그 영화를 만든 자본의 출처가 부산인 영화'로 할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김이석[11]은 장 피에르 주네 감독의 영화 '인게이지먼트'를 제작한 프랑스 영화사의 실제 소유주가 미국의 워너브러더스사임이 밝혀져, 이 영화가 프랑스정부로부터 받은 800만 유로의 프랑스 정부 지원금이 환수되고, 프랑스의 영화상 세자르 상을 박탈당한 사례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 영화'를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

한 영화'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여전히 지역 영화, 부산영화라는 개념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는다.

영화제작업 등록이 자유로우며, 1인 기업이거나 5인 이하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서 영화제작업 등록이 꼭 부산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부산 지역은 분명 서울, 경기와는 다르지만, 강원도와 제주도 와도 다른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의 위치이다. 부산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영화와 제주도가 이야기하는 지역영화가 더 이상 같지 않을 정도로 부산시의 영화는 한국영화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

지금까지 영화산업을 위해 부산지역에 투자된 비용에 비해 실제로 부산영화산업의 형성이 미비한 원인에 대해서 부산영상위원회가 영화문화의 측면에서의 접근에 치중하고 있고, 업무의 중복에 의해서 통합적인 접근이 부재하다는 비판에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과 경기 디지털 콘텐츠진흥원의 사례를 들며, 부산 영상위원회, 부산 국제영화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중심으로 한 통합을 통해 부산 영상콘텐츠산업진흥원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12].

서울지역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한국영화 산업 클러스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킬지 모른다는 입장에서 송낙원[13]은 영진위와 종합촬영소의 부산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인 반면, 김진혜[14]는 서울 경기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영상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영화영상산업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노력보다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산업과 중앙정부의 집중투자에 의한 결과이며, 경제규모가 커지고, 영화산업의 민간부분의 영역이 커진 지금의 현실에서는 민간과 서울시, 경기도의 보다 큰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부산이 영상산업으로서 중앙정부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하겠다.

III. 부산의 영화산업의 현황과 과제

1. 부산과 영화의 역사적 관계

부산과 영화와의 인연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시작으로

비롯되지 않았다. 식민지 시대의 일이지만, 서울의 경성고등연예관보다 4년이 늦은 1914년 3월 12일 부산 최초의 활동사진 전용상영관인 옥관(旭館, 아사히관)이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사인 조선 키네마가 부산 거주 일본 상공인들의 자본과 기술, 한국인 배우와 영화인의 참여로 1924년 7월11일에 설립되어 <해의 비곡>을 포함하여 4편의 영화를 제작한다. 연기자들은 토월회 출신배우들로 조달하고, <해의 비곡>(1924)의 연출자는 일본인 감독이었으나, 조감독 이경손, 연기자였으나 후에 영화감독을 한 안종화, 윤백남 등이 모두 이 영화사에 모여들었으며, 훗날 <아리랑>(1926)을 연출한 함홍출신의 나운규도 경성에서 부산까지 내려와 영화사에 입사하였다[15]. 자본이 있자 나운규를 비롯한 부산 이외 지역의 연기자 및 영화인들이 찾아오게 된다. 역시 일본인에 의해서이지만 1924년에 설립된 사쿠라바 상회는 부산지역 이외의 우리나라 전역과 대련까지 영화 배급망을 구축하기도 하였다[16]. 물론, 식민지시대의 경우,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가 가져온 이점이 물류와 사람이 모여드는 국제적 항구도시를 형성하고, 기업창업정신이 고양되어 있었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산이 국제 항구도시로서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 교류가 활발하고, 토박이보다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수용한, 오픈 마인드적, 코즈모폴리탄적인 도시 특성은 다양한 시나리오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영화산업의 특성에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1958년에는 부산영화평론가협회가 구성되고 부일영화상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영화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2년에는 서울 이외지역의 최초의 연극영화학과로 경성대학교에 연극영화학과가 설치되어 올해 30주년이 되었다. 1996년에 처음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러한 부산의 영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99년에는 부산독립영화협회가 결성되고 '메이드인 부산 독립영화제'를 개최한다. 부산에서 만들어진 독립장편극영화 다큐멘터리는 1994년 엄정석의 16mm 장편<나쁜 시절>을 포함하여 2009년까지 21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부산영화위원회는 1999년에 설치되어

부산지역 로케이션 유치와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를 운영하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48편의 부산지역 장편극영화제작에 11억7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2. 부산영화산업의 물적 질적 토대

부산의 영화산업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정부의 지원과 통제 속에 성장하여 한국영화산업을 대표하는 서울지역 영화산업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형성되어 왔다. 1996년 부산영화제가 시작된 시점은 부산시가 신발산업 등 전통적인 굴뚝형 제조 산업의 사양길에 접어들어 와중이기도 하다. 저임금의 노동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점차 더 낮은 임금을 찾아서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옮기거나, 양산 등 신흥공업도시로 이전하고 부산 시민은 부산시가 점차 소비도시로 변하고 있다고 보았다. 부산시가 소비도시로 변한다는 인식은 결국 부산시가 2차 제조업산업에서 3차 서비스산업의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더군다나, 부산이 전통적으로 수행하여왔던 항만물류의 경우도, 인천항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항구중심에서, 광양항, 평택항, 등 정부의 정책변화가 부산지역의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사정에서 단순히 부산영화제를 개최하는 영화제도시에 머물기 보다는 본격적으로 영화를 비롯하여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표 1]은 지금까지 부산시가 영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내용이며, [그림 1]은 부산영화산업현황의 개요도이다. 영화영상타운과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부산 해운대 센텀 시티에 집약화 되어 있다. 서울의 상암동 DMC와 유사한 타운이 형성된 것이다. 수도권 경우 경기도는 고양시의 테마파크 ‘한류월드’, 부천시시의 ‘영상문화단지’, ‘한강시네폴리스’의 조성을 통해서 영상문화산업의 집적지를 노리고 있다. 부산시의 직제 상 부산시의 영화영상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부산광역시 영상문화산업과이며, 지역의 영화산업에 대한 요구의 이론적 토대를 집약하는 기관은 부산발전연구원이며, 영화영상 관련 사업의 집행은 부산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가 영상산업 관련하

여 1년에 집행하는 예산도 지방자치 단체 중 최고이다. 2008년 기준으로 부산시는 223억 원, 경기도는 203억 원, 서울 95억 원, 광주 89억 원이다[17]. 서울의 경우 자연스레 형성된 영화산업의 민간영역에 의한 투자와 대기업의 투자, 그리고 한국영화산업 전체에 대한 정부투자의 직접적 혜택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직접 투자액보다 작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과 경기도, 부산시, 그리고 광주 이외의 지역은 영상산업의 측면보다는 지역 영상문화 확산과 로케이션 촬영유치를 통한 관광증대 등 부대효과를 얻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부산지역 영화관련 시설현황(2012년8월 현재)

기관명	사업내용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2011년 영화제 예산 119억4천만 원(시비 69억 원, 정부지원15억 원) 1996년부터 시행
영화의 전당 두레마을	대지비용 제외하고 1678억 원 공사비 투입. 연간 운영비 60억 원 예상.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시네마테크 부산. 4천석의 야외극장을 포함하여 5개의 극장 보유.
부산영상위원회	영화 기획·개발비 지원, 부산지역 영화제작지원, 영화 기획, 개발 인큐베이팅, 로케이션지원 산업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진행. 2011년38편의 촬영유치.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2011년 13편이 541일간 사용. 디지털 촬영 스튜디오- 3D 프로덕션 센터로 재단장.
부산영상벤처센터	부산지역 영화영상관련 기업 20여개 업체 입주
AZ works	공사비 322억 원 투자(국비 231억여 원, 시비 121억여 원, 민자 80억 원) 경영난을 겪다가 2011년3월 CJ가 지분 74.1%를 인수, 부산영상위원회는 24.9%지분 보유. 100여명의 직원. 현재 미국과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중. 연매출 60억 원 목표.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공사비 350억 원(국비 175억원,시비175억 원)
영화영상타운 (건설예정)	248억 원 공사비 추정. 영진위 부산종합촬영소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
부산영화체험 박물관(건설 예정)	구도심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등을 목표로 옹두산 공원 일대에 431억여 원의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중.

2.1 인식의 전환: 영화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산시의 투자는 현재까지는 하드웨어, 부동산과 연관된 투자가 대부분이다. 영화산업이 아니라 영화 건축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 작업을 위한 후반작업시설 등 기초 인프라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갖춰두었다고 해서, 영화 프

로젝트가 자연스럽게 부산으로 찾아와서 촬영을 하고, 부산지역의 영화 인력의 고용이 이뤄지고 영화산업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시는 세계수준의 후반작업 시설을 모델로 하여 에이지웍스를 만들었고, 건축비 1678억의 영화의 전당을 선보였고, 센텀 시티 내 문화 콘텐츠 콤플렉스 등 영화 콘텐츠 산업의 집합화를 이뤄내고 있으며, 앞으로 종합촬영스튜디오와 영화박물관, 영화인 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이러한 접근은 예전의 굴뚝산업형태의 제조업적인 사고, 부동산 개발경기,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로또당첨과도 같은 영화홍행에 직접 투자하여 수익은커녕 원금을 손해 보는 경우의 책임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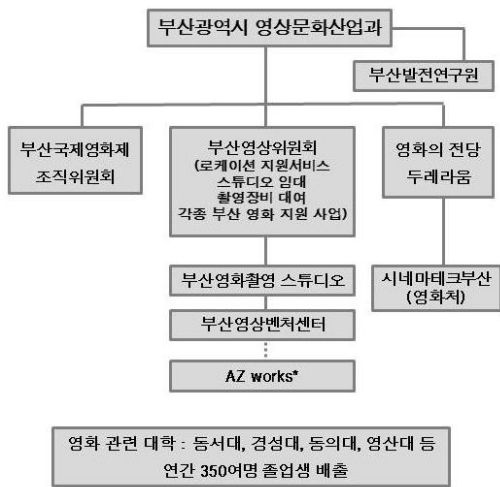


그림 1. 부산지역 영화산업 개요도 (2012년8월 현재)

2.2 프리 프로덕션에 대한 투자 집중

현재의 부산영화산업은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완료되었으나, 정작 그 시설을 100% 활용할 프리 프로덕션에 대한 투자가 미약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시나리오 개발에 대한 투자는 부산영상위원회의 지원 사업이 전부이며, 시나리오 개발이 끝나더라도 실제 제작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서울지역의 자본과 대기업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투자는 부산시가 얼마나 영화산업을 원하는가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의 표현이기도 하다. 부산영상위원회의 지원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도부터 시행한 부산 지역 장편극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서 2011년까지 총48편에 11억 7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부산 지역 소재 영화사의 작품에 편당 최대 1억 원, 편당 3천만 원 지원 2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대표 지원작으로는 <돌려차기>(2004), <오구>(2003), <우리형>(2004), 등이 있으며, 특이점으로는 부산지역의 영화감독인 전수일 감독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2003),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2005), <검은 땅의 소녀와>(2007),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2008), <큰들은 날아간다>(2012) 등 그의 전 작품 총 9편중 5편의 지원을 받았다. 한정된 예산에서 부산지역이라는 한정된 대상을 통해서 주어진 기간에 일정한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부산 영상위원회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부산 시나리오 공모전은 2002년 시작하여 2010년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부산 지역 로케이션 유치를 촉진하기위해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장편극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최우수상 1편 2천만 원, 우수상 2편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총 16편, 2억3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대표 지원작으로는 <애자>(2009)가 있으며 200만 관객을 동원하였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화 기획 개발비 지원 사업은 1단계 7편, 편당 1천5백만 원, 2단계 3편, 편당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2013년에 영화기획개발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부산지역에서 촬영하는 조건으로 편당 1억에서 5억의 지원을 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매년 5편정도의 장편영화가 부산에서 제작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펀드에는 부산시가 30억 원을, 국내 영화 배급사 등이 2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18]. 영화의 전당 두레라움 건설비 1678억 원, 에이지웍스 건설비 322억 원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부산시가 영화의 프리프로덕션과 프로덕션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산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된 금액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20억여 원이 채 못 된다. 이 비용은 영화의 전당 1년 운영경비로 추정되는 60억 원보다 못 한 비용

이다. 영화의 전당 설계자도 처음부터 1천억 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축학개론>(2012) 속의 제주도 작은 집처럼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다. 우리 영화산업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영화인재들이 커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화인재들의 실력 검증은 결국은 작품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단계별, 규모별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펀드의 제공이 결국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인 것이다.

2.3 후반작업 시설 에이지웍스의 과제: 피터 잭슨감독과 뉴질랜드 영화산업

부산지역에서 로케이션 촬영은 하고서 서울에서 후반작업을 진행하던 과거의 경험과 아날로그 영화 시대 필름 현상소가 없어서 부산지역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현상과 인화는 서울에서 진행해야만 했던 부산지역영화인과 학생들의 경험은 부산지역에 후반작업시설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요구로 이어졌으며, 에이지웍스의 건설로 이어졌다. 에이지웍스가 벤치마킹한 대상은 할리우드의 픽사 스튜디오와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유명한 피터 잭슨 감독의 뉴질랜드 Weta Digital 컴퓨터 특수효과 스튜디오이다. 피터 잭슨감독의 성장을 살펴보다도, 작은 영화에서 블록버스터 영화감독으로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피터 잭슨 감독은 1987년에 뉴질랜드 영화커미션의 지원으로 B급 호러 코미디 영화 <고무인간의 최후>로 감독 데뷔를 하였다. 이후, 1994년 <천상의 피조물>을 만든 뒤에 할리우드로 진출하여 <아바타>를 비롯한 영화의 특수효과와 자신이 연출하는 영화의 특수효과를 자신이 뉴질랜드에 만든 후반작업 시설 Weta 스튜디오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 이전 뉴질랜드 영화는 변방의 변방이었다. <반지의 제왕>의 경우는 뉴질랜드의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로케이션 촬영을 이뤄내고 그 후반작업을 뉴질랜드에서 이뤄낸다. 같은 영어 문화권이라는 강점이 있고, 북반구의 미국과는 계절이 다르다는 이점이 있는 뉴질랜드이기는 하지만, 2010년 기준 뉴질랜드 인구는 부산시보다 100만여 명 많은 425만 명, 국

민 소득 3만여 달러의 나라이며, 진정한 자국영화는 일년에 4-5편이 생산되며, 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영화권에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에는 1994년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로 뉴질랜드 영화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 현재는 연간 합작영화를 포함하여 20여 편의 영화가 만들어 지고 있으며, 피터잭슨 감독이 할리우드 자본과 뉴질랜드 인력의 결합을 통한 영화작업이 뉴질랜드 영화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낙수효과가 뉴질랜드 영화산업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Weta와 같은 스튜디오 에이지웍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피터 잭슨 감독은 누구인가?

2.4 부산 지역 영화 인재 육성책의 시스템화와 상업영화펀드의 조성

결국 앞으로의 부산시의 과제는 영화인재를 적극 양성하는 길이며, 그 길의 방법은 영화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서 실력을 검증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대학생들의 졸업영화, 지역 다양성 영화, 소규모 저예산 장편 영화, 상업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별, 프로젝트 규모별 작품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을 통해서, 영화 인재의 실력을 검증하고, 다음 단계로 수직 이동할 수 있는 일종의 오디션과 같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당장 부산시가 힘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부산지역 고유의 영화펀드를 500억 정도의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상업영화 제작의 활성화를 통해서, 현재 구축한 부산시의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영화산업을 명실상부하게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상업영화 평균 제작비 25억 내외를 기준으로 20여 편이 제작될 수 있는 규모의 펀드를 통해서, 매년 5편에서 10편의 상업영화가 부산지역에서 만들어지며, 그 제작비가 지역의 연관 산업에서 사용되어지고, 극장 흥행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게 된다면 부산 영화산업은 선순환구조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 프로젝트가 연중 계속해서 부산시에서 발생한다면, 현재의 영화 인력의 유출도 감소할 것이며, 영화 관련 일로 삶에 대한 전망을 부산으로 세워서 부산지역에서 활

동하는 영화인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현재 상업영화를 하려면 무조건 서울이라는 인식에서, 부산이라는 옵션이 있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투자 결정되는 영화들과는 보다 다양한 양상의 작품들이 우리 영화계를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상위 20%가 소득의 80%를 갖는다는 Pareto 법칙은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10편의 영화가 나오면 그중 8편은 제작비 회수는커녕 손실을 보고 나머지 2편의 영화에서 8편의 손실을 만회하는 흥행을 거두는 경향이 영화산업의 속성이다. 그렇다고 볼 때, 1년에 10여 편의 상업적 흥행을 겨냥한 평균 제작비 25억 원 규모의 영화들이 부산에서 만들어져 개봉되어야, 그중 2편에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규모의 영화 제작 펀드가 필요하다. 영진위의 이전을 계기로, 부산시, 영진위, CJ, 롯데 등 투자배급사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단계별 인재 지원 방안의 개요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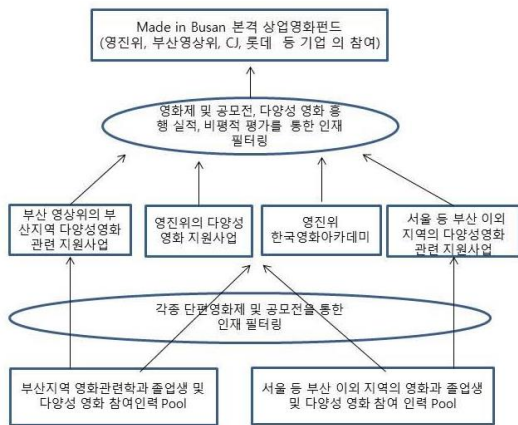


그림 2. 단계별 영화인재 지원 개요도

IV. 영화진흥위원회의 새로운 과제

1. 한국영화 마스터 플랜에서 부산의 위상 재정립

영화진흥위원회는 2012년 3월23일 부산시와 부산 신사옥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사업비 621억 원 규모로 센텀시티 내 영화의 전당 옆 부지에 들어서게

된다. 종합촬영소도 기장군 일대에 23만5천여 평 규모에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063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진척은 부산시가 표방하는 ‘아시아 영상 중심도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부산 이전을 계기로 영진위에 요구되는 것은 우선, 부산시를 단순히 영진위 사옥을 이전하는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부산지역이 왜 ‘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서 여타 기관들을 놔두고, 영진위를 원하였는지를 한층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부산의 영화산업을 현재 우리나라 영화정책이 서울, 경기 중심인 상태에서, 명실상부한 하나의 축으로, 실제로 인정하고, 국가영화정책의 큰 줄기에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고,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의 국제화와 세계진출을 위한 중요한 창구이다. 하지만 현재의 영진위 발전계획상에는 부산이전이후의 비전과 부산영화산업에 대한 위상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영화의 중추국 미국에서 영화산업의 시작은 뉴욕 인근의 뉴저지에서 시작하여, 기후와 특허소송 등의 요인으로 캘리포니아 할리우드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인접한 뉴욕과 할리우드는 미국 영화영상 산업의 양대 중심축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경기와 부산이라는 두 개의 Ports로 한국영화산업을 재정립할 수 있지 않은지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영화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부산영화산업을 인정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의 한국영화산업을 위한 준비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두 개의 종합촬영소 체제: 남양주와 부산

현재 영진위가 당면한 걸림돌은 부산이전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방침은 영진위의 부산 이전비용은 흥룡의 영진위 사옥 매각 대금 165억 원과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 비용으로 충당하라는 방침이다. 현재의 문제는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일반 매각이 4차에 걸쳐서까지 유찰된 상황이 현재의 처지이다.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경우, 한강의 상수원 보호구

역에 위치해 있고, 건물의 특성상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도 쉽지 않다. 133만6천409㎡ 규모에 감정평가액이 1천229억 원에 이르는 물건을 지정된 용도이외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뜻 구매자가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영진위에서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우선 인수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처지이며, 부산시의 경우,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존재하는 한, 부산 종합촬영소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기에, 하나의 종합촬영소만이 존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도 한국영화의 두 개의 포트 시스템, 혹은 두 개의 클러스터로 풀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제까지 서울과 경기도는 한국영화정책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종합촬영소의 최대 수혜자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영화산업을 위해 투자한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도, 정부의 투자에 의존하여 발전하였던 측면이 상당히 존재한다.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서울과 경기도가 인수하고, 영진위에 운영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서울과 경기도, 영진위, 그리고 대기업의 참여로 함께 운영을 하고, 부산의 종합촬영소를 건설하는 두 개의 종합촬영소 운영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종합촬영소를 위해 투자하듯이, 수익자인 서울과 경기도의 투자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종합촬영소는 국가가 영화산업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시설로서, 민간부분이 적극 참여하여 임대료 등을 현실화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종합촬영소의 저렴한 임대단가가 결국 민간 스튜디오의 임대단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현재, 부산에서 촬영한 영화편수는 13편이고, 드라마의 경우, 6편이 촬영을 하였고, 이중 MBC의 '골든타임'과 KBS의 '해운대 연인들'의 경우는 부산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 중이다. 종합편성채널의 증가로도, 부산 로케이션과 스튜디오 이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부산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한 영화의 경우도 10편에 달하며, 부산영화촬영 스튜디오의 경우, 두 개의 스튜디오의 2011년 임대기록이 13편의 영화에 임대일수 541일에 달한다[19]. 앞으로 본격적으로 영화편드가 조성되고, 로케이션 촬영과 스튜디오

촬영을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산이 남양주 스튜디오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3. 부산 상업영화 펀드: 영화제작의 선순환

부산영화산업의 핵심이 500억 규모의 영화제작 펀드 'Made in Busan' 상업영화 펀드를 통해서, 기존의 구축한 인프라를 100%로 활용하고, 아울러서 영화의 흥행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이 펀드의 조성과 운영에 그간의 펀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영진위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4. 한국영화의 국제화 전략의 재정립: 중국과 아세안 유대 강화

영진위의 현재 국제화전략은 중국시장에 대한 한국영화와 영화감독의 진출, 할리우드에 한국영화감독의 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아세안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4.1 스크린 쿼터 등 한국의 영화육성 시스템과 노하우 공유

1980년대 국민소득 4천 불 시대의 한국영화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우리영화 상황을 살펴본다면, 향후 아세안 국가의 경제소득이 증가할수록, 자국의 문화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욕구가 상승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당연히 미국영화 이외의 자국영화에 대한 수요와 욕구도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자국영화 육성책과 스크린쿼터 등의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일어날 것이며, 그러한 때에 우리나라의 영진위가 추진한 정책과 시스템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인적교류를 통해서 해당 국가의 영화관련 정책 결정의 위치에 있는 친한파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유튜브와 P2P로 이뤄지는 한국영화의 전파에서 아세안국가에 직접 배급을 통한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2 아세안 필름 아카데미: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국제적 영화학교로 확장

영화선진국으로서 우리의 경험과 시스템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류의 확산과 한국영화가 아세안국가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것이 우리 한국영화의 시장영역을 확장하는 데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추진하는 아시안 필름 아카데미를 한국영화아카데미와 결합하여, 한국영화아카데미를 명실 공히 국제영화학교로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4.3 영화 인재 육성책의 시스템 구축

학생 단편영화, 다양성 영화, 본격 상업영화로 이어지는 영화인재 육성책의 시스템화를 통해서, 영화후속 세대를 양성하여야 한다. 현재의 다양성 영화는 예술영화, 독립영화, 학생영화, 그리고 비주류 영화 등 다양한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 단순히 문화와 예술의 측면으로 다양성 영화를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상업영화 예비군으로서 다양성 영화를 바라보고, 이러한 미래의 예비군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시스템화하여 현재의 한국영화의 선전이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이전을 계기로 기존의 부산영상위원회 홀로 짊어지고 왔던 부산영화산업 발전의 과정은 영진위의 한국영화발전 계획의 큰 틀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부산 지역의 영화인들의 경우도 영진위의 이전이 현재의 부산지역 다양성 영화의 지원에 대한 축소로 다가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배타적이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은 서울에 비하면 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다른 지역과 비교하자면, 지역이 아니다. 어느덧 영화분야에서도 한국의 중심축이다. 현재의 부산지역 영화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사업을 이어가면서 영화관 입장 부과금을 계속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금을 지역 영상산업과 다양성 영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영화의 차세대 영화인재의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다양성 영화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단계별 영화인재 양성이 이

뤄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는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한 국제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영진위는 영화인의 헐리우드 진출, 한국영화의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한 국제화에 초점을 두었다. 향후 아세안 국가의 경제성장을 통한 문화적 욕구의 확산에 따른 한국영화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의 유대강화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 방안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등 자국 영화 육성책을 전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한국영화아카데미의 확장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의 영화인재를 함께 양성하여 차세대 지한파 영화인 네트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서울과 지역이라는 지금까지의 부산영화는 한국영화산업 전체의 마스터 플랜과는 별개로 지방자치정부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느리게 진행된 부분도 존재하며, 중복투자자와 과잉 투자의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영진위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영진위는 한국영화산업 발전방안에서 부산의 위상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영진위의 도움과 관심이 없더라도 부산시의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활성화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과 자원도 가지고 있다. 영진위 부산 이전으로 부산시가 단순히 100여명의 영진위 임직원이 부산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제적 효과를 보고 영진위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지역 연관산업으로서 부산 지역에서는 다른 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절실한 마음에서 선택한 것이다. 자칫 껌데기만이 왔다 라는 지역의 배신감이 생겨나고 영진위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현재의 지방이전의 단점들로 이야기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영진위와 부산시로서는 위기이자 기회로서 영진위 부산이전을 새로운 한국영화산업 발전의 이정표로 만드는 공동 노력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20명의 국회의원에서 2명이 모자란 18명의 부산지역 국회의원도 부산영화산업이라는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영진위의 우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서울, 경기와는 다른, 그리고 여타 지역과는 다른, 부산이라는 문화,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는 부산영화산업의 건설이 요구되며, 이는 현재의

한국영화의 호황을 10년, 20년 뒤에도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준비이다.

참고 문헌

[1] http://www.alio.go.kr/alio/public/p_ma_02_00_list.jsp?org_code=C0099

[2] http://www.alio.go.kr/alio/public/p_ma_14_00_list.jsp?org_code=C0099

[3]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p.18, 2005.

[4] 강소원, “변방의 변방, 지역 독립영화의 현황: 부산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제15권, pp.157-184, 2009.

[5] 서울 영상집단, 변방에서 중심으로, 시각과 언어, 1996.

[6] 김이석, “지역영화의 위기 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학 연구, 제14권, 제2호, 2010.

[7] 영화진흥위원회, 2011년 전국극장현황, 2012.

[8] 2011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2012.

[9] 2012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서, 2012

[1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20305.22019193722>

[1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20309.22017195818>

[12] 이희승, “부산 영상산업 진단 및 통합적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구 모델”, 언론학 연구, 제15권, 제1호, 2011.
오재환, 강성권, 이종필, “부산영상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09.

[13] 송낙원, “한국영화 산업 클러스터 정책 연구”, 영화연구, 제37호, 2008.

[14] 김진해, 한국의 영상산업 클러스터 정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5호, 2009.

[15] 홍영철, 부산근대 영화사 영화상영자료 1915-1944,

pp.37-44, 산지니, 2009.

[16] 같은 책, p.58, 산지니, 2009.
김계작 편역, 일본어잡지로 보는 식민지 영화 2 : 1924년 -1933년, p. 135.2011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사연구소,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 영화 1, pp.129-131. 한국영상자료원, 2010.

[17] 류형진, 지역의 영화제작 투자 현황과 과제,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2008년 10월호, 영진위, 2008.

[18] 김종균, 영화기획개발 투자펀드 50억 규모 부산서 뜬다, 부산일보, 2012.8.27.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827000120>

[19] 부산영상위 실내 스튜디오 2011년 따뜻했네 부산일보 2011.12.29.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90000&subSectionId=1010090000&newsId=20111228000045>

저자 소개

김정호(Jung-Ho Kim)

정회원



- 1992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 과(학사)
 - 1994년 3월: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연출 전공 졸업
 - 2001년 6월 :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program in film & video MFA.(예술실기석사)
 - 2003년 3월 : 동서대학교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 전임 강사
 - 2004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영화 영상제작, 영화사, 영화편집, 영화 경제

김재성(Jae Sung Kim)

정회원



- 1983년 8월 : 서울대학교 영어과 (문학사)
- 2000년 5월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epartment of Radio, Television, and Film, Production in Film and Video

(MFA)

- 1987년 1월 ~ 1997년 5월 : 제일기획 제작팀장
- 2000년 9월 ~ 2001년 8월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방송영상학과 조교수
- 2001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교수

<관심분야> : 다큐멘터리 제작, 영화 영상제작연출, 시나리오, 디지털 콘텐츠